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틈
연세대학교 제 17대 총여학생회
fenergyup@yonsei.ac.kr
www.yonsei.ac.kr/~ysfem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찰찰한 억압과 모호한 해방에 관하여

2005 섹슈얼리티 영화제

개막 퍼포먼스

여성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그녀들의 움직임에는, 그녀들의 꿈과 노래와 아픔과 웃음이 묻어나있다.

긴장 따위는 벗어던지고 몸에서 외쳐대는 온갖 소리에 귀 기울여 대답한다.

땅 위에 그려진 화색 빛 기억들은 강렬한 햇빛 아래 숨죽여 었드려 있다.

그 기억들도 앞으로 펼쳐질 축제를 준비하며, 콧바람을 불어댄다.

그녀들은 가볍게 땅을 차고 오르며 리듬을 만든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색색들이 선명한 욕망들이

화색빛 기억위로 이곳저곳에 뿌려진다.

그녀들을 담쳐왔을지도 모르는 화색 종이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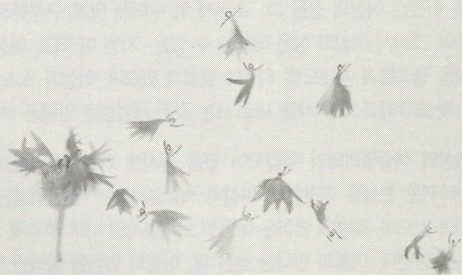
그녀들은 자유롭게 유희한다.

그녀들은 노래한다.

"나도 알아. 화색빛 기억은 이로써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욕망하는 것은 매우 강렬해.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오래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강렬함은 바로 나야."



■ 영화제 일정

5월 23일(월)

개막퍼포먼스 + 조형물 설치 12시 중도 앞 광장

소년은 울지 않는다 Boys don't cry 저녁 7시 상대 각당현

5월 24일(화)

파니핑크 Keiner Liebt Mich 저녁 7시 공대 C 040

5월 25일(수)

바비인형의 제국, 아름다운 육체 저녁 7시 과학관

5월 26일(목)

팻 걸 A Ma Soeur! + 토론회 저녁 7시 공대 C 040

5월 27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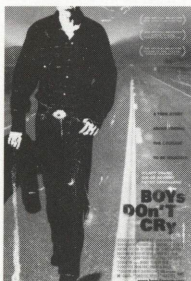
폐막콘서트, "괜찮아, 잘 될 거야" 저녁 7시 푸른샘

영화소개 #1

23일(월) 저녁 7시 상대 각당헌

소년은 울지 않는다

Boys don't cry



1972년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실제 인물 '티나 브랜든 / 브랜든 티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브랜든 티나(여기서는 주인공이 스스로 붙인 이름인 '브랜든 티나'로 부르고자 한다.)는 남성의 성 정체성을 원하고, 남성적인 외모와 행동을 추구하며, 여성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또는 그녀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주인공은 낯선 곳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라나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된다.

브랜든 티나의 이야기는 성별 이분법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남성인 척하는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꼬리표는 브랜든을 '끔찍한 폭력과 혼란을 겪어 마땅한 인간'으로 낙인찍는다.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었던 브랜든은 자신에게 가해진 성폭력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브랜든에게 '명확한' 대답을 요구한다.

브랜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브랜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분노하는 사람은 연인인 라나뿐이다. 여성죄수들이 수감된 철창 안에서 어눌하게 자신의 성을 설명 하려고 애쓰는 브랜든의 손을 잡으며 라나는 말한다. '난 네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내가 여기서 꺼내 줄게.'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멤피스로 떠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브랜든이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는 노을 지는 폴즈 시티의 풍경은 '남'과 '여'라는 두 단어로 밖에 누군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아니 그 외의 말로는 설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슬프게 투영시킨다.

영화소개 #2

24일(화) 저녁 7시 공대 C 040

파니 핑크

Keiner Liebt Mich



파니 핑크는 죽음을 연습하는 모임에서 자살법을 배우고 관을 쥔다. 그리고 낯고 외로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면 우울한 얼굴로 읊조린다. "나는 강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사랑받고 사랑받는다..." 그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언제나 외로웠다. 그녀는 남성과의 연애를 갈구했고, 그것으로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파니핑크는 단순히 연애에 목마른 수동적인 여성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습에서 관객이 웃음을 터트릴 수 밖에 없는 그녀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힘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거야' 식의 활기참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코믹하게 구성해갈 줄 아는 건강한 귀여움이다. 그녀는 결코 방안에 틀어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진 않는다. 죽음을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자살을 연습하고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외로움의 극단과 부딪혀보기도 하고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매우 그로테스크한 주술사 오르페오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파니핑크는 근사해보이는 남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미는 여성스러운 모습, 여성으로서의 평범함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파니핑크는 '여성성'을 갖추는 것이 연애를 비롯한 그녀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음을, 결국 자기

파니핑크는 근사해보이는
남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미는 여성스러운 모습,
여성으로서의 평범함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파니핑크는
'여성성'을 갖추는 것이 연애를 비롯한
그녀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음을,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녀가 가진 본연의 자존감을 일깨워 준 인물 오르페오는 게이였고 흑인이었다. 사회적으로
매우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는 매우 영적이며 다채로운 요소들로 그녀의 삶을 어루만지고
자신의 상처 또한 그녀를 통해 치유받았다..(오르페오는 종종 파니 핑크에게 금품을 요구하긴
하지만.) 영화 곳곳에서 자리잡고 있는 재치와 엉뚱한 상상력에 덧붙여, 우리를 매우 신나게 했
던 것은 사회적 잣대를 벗어난 파니 핑크와 오르페오의 사랑이다. 게이 그리고 애타게 이성
을 갈구하던 여성이 만나서 서로를 '사랑' 하게 되었다. 그 사랑은 로맨스로 포장된 각본도, 성
기 삽입 중심의 섹스도 없이 깊은 대화를 통해 조용히, 때로는 유쾌하게 서로의 마음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그들이 표현하는 사랑은 이성애 중심의 연애 관계라는 틀을 넘어서 서로
의 삶에 용기를 주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 맺음이었던 것이다.

수많은 그녀들은 외로웠고 울었고 홀로 자신을 삭혀왔다. 저항하기엔 너무나 고달팠고 숨죽
여있기엔 너무나 상상했던 많은 그녀들이 파니 핑크를 통해 웃음과 위로, 그리고 에너지를 얻
어가길 바란다. 타인과 깊이 관계 맺으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끝낼 수 있는, 언제나 도
발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로이 변화시켜가는 진정 자유로운 여성을 꿈꾸어 본다.



영화소개 #3

25일(수) 저녁 7시 과학관

바비인형의 제국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무려 40여 년간 사랑받고 있는 바비인형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유쾌하고도 통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현재 바비인형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해오면서 사회에서 바라는 여성상(몸/옷차림/심지어
목소리와 각종 이야기까지도)을 충실히 대변하며(혹은 재생산하며) 시대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
았다.

만약 사람이 바비인형과 같다면 키 170cm/몸무게 42kg/신체사이즈39-23-33이고 이는 창
자와 자궁 등 각종 내장을 들어내야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비의 몸은 최고로
아름다운 몸이라 칭송받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 폭력적이면서 성애화된 일상
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결국 왜곡된 사회의 욕망이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은, '인간
으로서 불가능한' 바비의 몸이 되기 위해 여성들은 폭식증과 거식증에 시달리고 자신의 피부
색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한다. 정작 여성들은 그 구성에 있어서 절대 주체적이지 못했던 '여성
의 몸에 대한 판타지' 때문에 자신들의 몸-나아가 정체성까지 긍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영화는 적어도 바비인형과 이런 일상 사이에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람
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설치미술가를 통해 이야기한다. 인형은 인형일 뿐이라며 거대한 구
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 바비가 우리를 따라하는 것인가, 우리가 바비를 따라하는 것인가?

아름다운 육체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한 쪽 유방을 제거했다.

딸은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영화 속에서 딸은, 어머니를 무성적인 존재로 여겨왔고 그래서 유방이 없는 게 어머니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다고 토로한다. 사실 이건 너무나 일상적인 생각이다. 첫째, 어머니는 무성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니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그녀들을 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둘째, 유방은 그저 섹슈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여성의 유방을 섹슈얼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TV속에서 흘러나오는, 유방제거술을 받으러 갈 때 손수건과 핀을 준비해오라는 이야기(유방모양을 만들어 넣음으로써 병원을 나설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거나), 사우나에서 어머니의 가슴께로 쏘리는 사람들의 시선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촬영에 앞서 반짝이 파우더를 발라 섹시함을 강조하는 딸의 유방. 이런 일상 속에서

- 당신은 당신의 몸을 긍정하고 사랑해야한다

와 같은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타자화의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딸은 상상한다. 유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곧 인정한다. 다시는 유방을 가질 수 없는 게 뭔지 자신은 절대 알 수 없음을. 잠깐 눈을 감았다고 해서 맹인의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여성의 몸은 온전히 그 몸의 주체인 여성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사우나에 가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자신의 몸이 부끄러워서 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였다(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자신의 온전한 몸이 사랑받는 생각을 했을지언정, 자신의 몸에 대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몸에 대한 풍부한 사랑을 방해한 것은 '딸의 우려'였다. 딸은 공허하게 외쳤을 뿐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딸과 어머니가 가만히 몸을 기대며 교감하는 모습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온전한 소통을 방해하는 일상 속의 기제들, 여러 상황들, 그리고 애초에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은 언어들을 모두 뛰어 넘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제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그들이 처놓은 촘촘한 억압 안에서 한없이 놀리기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원했던 바니까. 억압을 해체하되, 모호하게라도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긍정하고
사랑해야한다
와 같은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타자화의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딸은 상상한다.
유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곧 인정한다.
다시는
유방을 가질 수
없는 게 뭔지
자신은 절대
알 수 없음을.

팻걸

A Ma Soeur!



“잔 것은 언니였지만 느낀 것은 나였다.”

팻 걸이 상영되면서 함께 내걸렸던 영화의 카피다. 이 문구는 섹스가 주는 성적 흥분과 관음증적인 시선이 주는 은밀함에 대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 문구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 말해지지 않는 섹스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동생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

언니 엘레나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다. 엘레나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든 엘레나의 몸은(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동생 아나이스는 언니에 비해 뚱뚱하다. 뚱뚱하다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다”, “성적으로 어필할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엘레나와 아나이스는 연애와 섹스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엘레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첫 섹스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나이스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첫 섹스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자매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섹스와 폭력이라는 이름의 섹스를 경험하게 된다.

숨막히게 오랫동안 보여지는 엘레나의 섹스경험을 통해 관객들은 매우 전형적인 섹스각본을 볼 수 있다. 남성의 사탕발린 말들, 엘레나의 초조함과 갈등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성적 흥분이나 관음증적인 은밀함이 아니다. 또한 그 둘의 친밀한 애정행위를 느끼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감독의 시선은 매우 냉정하다.

관객들은 흘러가는 영상 속에서 매우 익숙한 장면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느낌은 매우 낯설다. 혹은 불편하다. 여성이 성적 실천을 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느낌들을 매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시도조차 우리는 접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엘레나가 지르는 비명과 옆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있는 아나이스를 통해 나의 경험을 떠올린다.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물음에 한 번 답해보자.

사랑이라는 이름의 섹스, 그리고 폭력이라는 이름의 섹스. 도대체 뭐가 다른가?

※ 영화 상영 후,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카트린 브레이아와 섹스, 그리고 팻걸

카트린 브레이아의 모든 영화는 섹스를 다룬다. 브레이아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영화는 섹스를 주제로 하지 소재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녀에게 섹스란 혹은 섹슈얼리티란 인간, 계급, 정체성, 폭력, 권력 등의 문제를 담는 커다란 그릇 같은 것이다. 그 가감없는 섹스 액트를 통해, 카트린 브레이아는 여성에게 가해진 사회적 억압과 인간에게 가해진 문명의 억압 모두에 맞선다. 인간의 허위 의식을 무 자르듯 잘라버린다.

브레이아에게 있어 섹스의 인공성을 폭로하면 코미디가 되고, 섹스의 환상성을 폭로하면 비극이 되며, 섹스의 폭압성을 폭로하면 호러가 된다. 그녀에게 있어 섹스는 코미디이자 비극이자 처절함이며, 동시에 섹스는 섹스이다. 카트린 브레이아는 <팻 걸>에서 이들 숫처녀들의

승강이를 자본주의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남자를 등지고 웅크리고

있는 포즈를 통해, 처음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변화에 대한 전면적인 두려움, 전세계가 관통하는 듯한 그 느낌이 가질 중대함, 욕망을 따라갈지 자존심을 지킬지 사이의 치열한 싸움으로서 그 설렘과 망설임을 갈피갈피에 꽃아 둔다. 우리가 한때 느꼈던, 그녀들이 느낄 바로 그 느낌 말이다. 관찰되어지기보다 여성 내부에서 나오는 바로 그 느낌 말이다.



심영섭 / 영화평론가 chinablue9@hanmail.net

41년21



“괜찮아, 잘 될거야”

여성의 몸에 기록된 촘촘한 억압으로 인해
그녀들은 해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지 못한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녀들
을 아프게 했던 일들, 그녀들을 화나게
했던 일들을 차마 치유할 겨를도 없이,
언제나 “여성” 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
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아해했다. 그녀들은
언제나 살아있어, 내면 깊숙이 조금씩 길
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길
에 많은 여자친구들을 초대했다. 너의 탓
이 아니라고, 너는 오롯이 너 자신의 것
이라고,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도울
수 있게 손을 맞잡을 것을 약속하면서.
그녀들은 노래를 부르고 온 몸으로 말하
며 일상의 면밀한 곳 까지 자신의 바람을
불어내고 있다. 그 바람이 우리의 여름을
시원하게 한다.



Vocal

강은하 (이화여대 언론정보영상 02)
김수연 (이화여대 보건교육 02)
서경은 (숙명여대 아동복지 04)
양리원 (이화여대 불문 01)
양하늬 (이화여대 영어교육 01)
장순영 (성신여대 국어국문 04)

Guitar

이춘수 (연세대 신학 98)

Synthesizer

양최현경 (연세대 사회 00)
최혜은 (이화여대 중문 02)

함께 하는 사람들

쌍투스 코러스의 여자 친구들.
움펄툼 총여학생회.

함께 한 사람들

<2005 섹슈얼리티 영화제 자원활동단>

결 사회계열04
도병욱 사회00
박민음 사회02
식초 신학03
썸 천문우주03
썬 사회계열04
아이써 사회계열04
아해 경제04
다듬 경영04
짱 사회03
초원 인문계열04
토닥 인문계열04
풀문 사회01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펄·툼 총여학생회 집행부>

고래 교육02
들레 사회00
별 도시공학03
초생 사학03